

학교폭력 중학생 사망 원인 추측·소문 난무 '불신의 교실' 학생들이 아프다

밀고자로 몰린 여학생 부모 탄원서 ... 2·3차 피해 우려

학교폭력에 시달려오다 숨진 채 발견된 광주 모 중학교 학생 사망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하면서 2차·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숨진 A군과 같은 반이었던 급우가 A군 사망과 관련돼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급우 가족들이 지난 6일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의 미숙한 대처를 지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A군의 급우인 B(15)양의 부모는 탄원서에서 "A군이 숨진 지난달 28일 담임교사가 건넨 메모지에 말이 '숨진 A군이 같은 반 학생에게 담배를 가져오라고 했다'라는 내용을 적어냈으며, 이 같은 사실이 학교 내외에 알려지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고 밝혔다.

"(말이 쓴) 쪽지 때문에 A군이 체벌을 받고 자살했을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면서 최근 다른 지역에 요양까지 갔다는 것이 B양 아버지(45)의 주장이다.

B양의 아버지는 "말이 담임교사에게 전달한 쪽지에 대해 담임교사가 수사상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A군의 유족과 경찰에게 밝힌 뒤 사실이 왜곡되면서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던 말의 학교생활은 물론 이후 삶에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양의 아버지는 특히 A군 사망사건 이후 2·3차 피해가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와 학교측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A군 사망사건과 관련 같은 반 학생들은 물론 학생들 사이에서는 A군의 사망 경위와 원인 등을 놓고 온·오프라인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나 학교 측은 오히려 방학을 앞당겼다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선 "B양 가족들이 짜고 A군을 죽인 뒤 말을 도피시켰다"는 충격적인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는 것이 B양 아버지의 주장이다.

B양 아버지는 "담임 선생님과 학교 측이 아이를 위해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담임교사 등은 수사과정에서 B양의 메모지가 누설됐다는 해명만 했다"

B양 아버지는 광주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보강 조사를 통한 명백한 진

상규명, 담임교사와 교장의 사과 및 사법처리, 관련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전학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 측은 "B양이 노출된 것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으로 담임교사나 학교가 의도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없었다"며 "B양 아버지를 만나 이번 사건의 추이와 B양의 상태를 지켜본 뒤 전학 등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관련 사건은 2, 3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신변보호와 보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1대1 멘토관리, 심리치료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경찰 손잡고 학교폭력 예방

광주시와 시 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은 9일 시청에서 강은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 이금형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학교 폭력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학교 폭력은 가정과 사회구성원 전체가 나서서 대처해야 한다며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에 폭력 신고전용 휴대전화 보급 ▲취약 지역에 퇴직 교원과 경찰관, 군인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 배치 ▲학교 내 민

간경비원 배치 ▲학교 내 CC-TV 설치 운영 등 기존 대책을 재확인했다.

경찰청은 부모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실 운영, 일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경찰관 위촉 및 기관과 단체가 연계한 학교 폭력 예방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학교 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학교 폭력 피해자 등 위기청소년 관리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8478) 김종두



학교폭력 가해 중학생 사전영장

광주 북부경찰

지난달 28일 학교폭력에 시달려오다 숨진 채 발견된 광주 모 중학교 2학년 생 A(14)군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가해자에게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은 9일 A군에게 폭력을 일삼고 금품을 빼앗은 B(14)군에 대해 폭행 및 공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군은 A군을 상대로 8개월간 29차례 돈을 빼앗거나 때린 것 외에도 같은 학교 학생 9명을 상대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총 46회의 범죄 수사기록 중 A군이 촉발소년에 해당 될 당시의 혐의내용을 제외한 24회의 폭행 및 공갈, 협박사실만을 사전구속영장 신청의 대상으로 정했다.

경찰은 A군이 평소 학내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 일반 학생들의 정상적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B군 외에 A군을 폭행한 혐의로 다른 선배 1명과 동급생 1명 등 2명은 불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가혹한 질책 자살 군인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선임병에게서 심한 욕설, 폭언이 섞인 질책을 받다가 자살한 이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장원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자살한 이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6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임병들이 일반적 훈계나 교육의 한계를 넘어 이른바 '탈립'으로 불리는 욕설, 폭언, 심한 질책 등 가혹행위를 반복했고, 이 때문에 평소 내성적이던 이씨가 자기 비하와 동기에 대한 미안함, 업무에 대한 중압감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간부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자살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연합뉴스

마트 알바 주부들 생필품 '아름아름'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부들이 마트에서 판매하는 반찬 등 생필품을 훔쳤다가 무더기로 경찰서로..."

○"9일 광주광산경찰에 절도 혐의로 입건된 A(여·44)씨 등 7명은 지난해 9월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광주 광산구 도산동 모 마트에서 공치, 돼지고기 등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쳤다는 것."

○"이들은 반찬 등 생필품이 개수가 줄더라도 확연히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으며, 7명이나 되는 종업원들이 물건을 훔치기 시작하면서 재고가 확연히 줄어들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의 신고로 들로."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평교사 추락 교장들 반년만에 복귀 한다

시교육청 중임 제정키로

광주시교육청의 중임(重任) 금지로 평교사로 내려앉았던 교장 3명이 6개월 만에 복귀하게 됐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최근 감사에 따른 조치로, '시교육청의 인사조치가 과소했던 것 아니냐'는 교육계의 해석이 나온다.

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기인사에서 평교사로 발령난 K 교장 등 3명에 대해 조만간 심사를 거쳐 교과부에 중임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임은 교장의 총 임기(8년) 중 초임(4년)을 지낸 교장이 또 다시 4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절차상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교육청에서 심의를 거쳐 교과부에 제청을 요청하면, 교과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번 교육청의 중임제정은 지난해 12월 교과부 감사에서 중임 거부로 문제점이 지적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당시 이들 교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 등으로 경징계 요구가 됐다는 이유를 들어 중임을 금지했다. 시 교육청은 중임제한 이유로 '승진제한 규정(징계의결 요구 중에 안된다)'는 규정을 들었지만, 교과부는 이런 이유로 시 교육청이 중임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교과부는 성적조작, 금품수수, 상습 폭행, 성범죄 등 이른바 4대 비리의 중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중임배제 조치가 지나쳤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비위를 근절하는데 공감하지만, 교원의 징계나 인사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교장은 중임이 금지되면서 일선 학교 평교사로 발령됐다가 현재 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파견근무 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설 식품 원산지 표시 점검

설(23일)을 10여일 앞둔 9일 광주 북구청 위생과 공무원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과 함께 말바우시장의 한 미국 판매점을 찾아 원산지 및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찰청 신고 포털 위조 보이스 피싱 조심

광주지방경찰청은 9일 "경찰청의 신고민원 포털을 위조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보안카드 번호까지 입력하던 중 이상한 김씨가 들어 작성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이 김씨에게 알려준 도메인주소(casia112.net)에 접속해 '사이버 112'를 누르면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연결되고, 맨 하단의 '개인정보침해신고'에 은행명, 계좌명, 이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까지 입력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남성이 알려준 도메인으로 접속해 신고란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김씨는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까지 입력하던 중 이상한 김씨가 들어 작성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이 김씨에게 알려준 도메인주소(casia112.net)에 접속해 '사이버 112'를 누르면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연결되고, 맨 하단의 '개인정보침해신고'에 은행명, 계좌명, 이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까지 입력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CHANNEL 광주일보 채널A 뉴스 동영상 제보 받습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이 촬영한 영상이 가장 생생한 뉴스가 됩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영상, 사건·사고 사회 곳곳의 개선해야 할 점등을 촬영하여 제보해 주십시오.

촬영한 영상은 광주일보 채널A 뉴스 자료로 활용되며 채택된 영상에 대해서는 소정의 채택료를 드립니다.

보내실곳은 광주일보사 편집국 여론팀체부 전화 062-220-0639, 이메일 job0000@hanmail.net 입니다.

예약접수 중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사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야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마케팅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